



2012년 12월

## 입학지원 비자

아래의 서류를 본인이 직접 독일대사관 영사과에 제출하도록 한다.

- 빠짐없이 기재 및 서명이 된 **비자신청서 2부**
- 유효한 **여권** (인적사항이 기재된 페이지 사본 2부 첨부)
- 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된 백색배경의 **여권사진 2매 (3,5 x 4,5 cm)**
- 독일 **대학입학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**  
(일반적으로 졸업증명서 및 수능성적증명서)
- 1. 재정보증서 또는  
2. 장학금 수혜서 (장학금 수혜서에는 1년 동안 최소 월 659유로, 총 7908유로가 지원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함) 또는  
3. **슈페어콘토('슈페어콘토' 안내문 참조)**
- 최종학력증명서
- 2개월 이상의 **독일어강좌 등록증명서** (주 18시간 이상)

경우에 따라서 다른 서류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다.

### 주의사항 :

학업 시작 전(학업 준비를 위한 어학강좌 수강기간 포함)에는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없다.

배우자 또는 16세 이하 자녀가 동반하는 것은 허용된다. 비자신청 관련 제출서류에 관련된 정보는 '가족 동반' 안내문에서 찾아볼 수 있다.

제출한 서류가 완전하게 갖추어졌을 시 비자신청에서 발급까지의 수속기간은 약 4주 소요된다.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더 오래 소요될 수도 있다. 이를 참고하여 서류 신청을 미리 하도록 한다.

입학지원비자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, 외국인청에서는 이를 6개월 연장시켜 체류를 허가할 수 있다. 즉, 입학지원을 위한 최대 체류기간은 9개월이다.

비자신청 수수료는 **60 유로**이며, 신청 시 이를 **원화(현금)**로 지불해야 한다. 비자 발급이 거부되거나 신청자가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는다.

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했다고 해서 비자가 반드시 발급된다는 보장은 없다. 주한독일대사관 영사과에서 독일의 관할기관과 함께 이를 검토하고 발급여부를 결정한다.